

# 학습자 설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

## -충남3 거점 학습 참여자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 Social integration program improvement plan based on learner survey analysis

박종호<sup>1\*</sup> Jong-Ho, BAK (bwhan@joongbu.ac.kr) | ORCID: 0000-0002-8310-5531

<sup>1</sup>충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 전공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Joongbu University)

#### 국문초록 /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 이수 혜택, 이수 단계,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 82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지도, 접근성, 학습 목적, 학습을 원하는 분야, 학습 시간, 학습 단계의 적절성, 한국 생활 정착의 기여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조차 잘 알지 못했다고 응답(59.8%)한 비율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 목적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생활과 관련한 언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국적 취득 혜택이나 이수 자격증 등과 같은 실리적인 부분도 학습 참여 목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셋째, 학습 시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 모두 20~30시간가량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한국어와 한국사회 전반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체류 자격 변경 혜택 등 한국 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benefits of completion, the level of comple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ccessibility, learning purpose, and desired areas of learning, targeting 82 learners who are complet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examined through a survey analysis on study time, appropriateness of study stage, and contribution to life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59.8%) who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well abou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wareness and accessibility showed that the publicity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insufficient amo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ee. Second,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mainly about language and Korean culture related to real life while living in Korea, and practical parts such as nationality acquisition benefits and certificates of completion also showed a high proportion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n learning. Third, it was found that about 20 to 30 hours of study time were needed for bo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Fourth,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it was found to be of great help in settling life in Korea, such as benefits for changing the status of stay.

**주 제 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Key words:**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eigners, Korean language learning, Korean culture

<sup>1\*</sup>Corresponding author: bwhan@joongbu.ac.kr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현황(2022)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2022년 전체 인구 51,439,038명 대비 4.36%에 이르는 수치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 후반부터 정부는 한국 사회에 외국인 체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들,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단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최근 일원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영주 자격 신청 시의 혜택, 체류 자격이나 사증(VISA)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프로그램의 위상이 한껏 제고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자나 참여 대상의 확대, 일부분 의무제로 이수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의 변경에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기능, 문법, 어휘 등의 교육과 교수법,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왔으나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인데,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민자의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이성순(2008)에서는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을 통해 각 부처가 중복지원의 문제도 피하고 부서별 지원 업무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한국에서도 이민자의 사전 교육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2].

김일란·김남형(200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된 기능은 언어 교육인데, 언어 교육 실효성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은 논의도 하지 못하고 학습자의 교육과정 참여의 의무화 문제만 크게 부각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을 초급2로 보고 있으나 목표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200시간동안 초급 2수준을 갖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3].

박혜숙(2012)에서는 독일의 통합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화,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의 연계, 교육시간의 확대, 표준화된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4].

이미혜(2015)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과정이 국제통용 한국어교육과정, 요구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어휘 영역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보다 높은 수준임을 논의하였다[5].

이경주(2018)에서는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6].

전영순·김경제(2021)에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7].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구성 등 프로그램 내적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8][9][10].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이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15년간 교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모색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대학의 유학생들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제 교육 관련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향해 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좀 더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 이수 혜택, 이수 단계,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충남3 거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82명의 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접근성, 학습 목적, 학습을 원하는 분야, 학습 시간, 학습 단계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한국 생활 정착 기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겠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충남3 거점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성별은 남 30명, 여 52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1~25세 10명, 26~30세 19명, 31~35세 12명, 36~40세 14명, 41~45세 11명, 46~50세 6명, 50세 이상 10명이었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19명, 베트남 17명, 필리핀 13명, 우즈베키스탄 12명, 네팔 9명, 태국 4명, 미얀마 3명, 몽골 3명, 인도네시아 2명 등이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7명, 전문대학 졸업 25명, 대학교 졸업 24명, 대학원 이상 16명이었다.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1년 이하 17명, 2년 이하 19명, 2년 이상 46명 등이며 설문 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 사회통합프로그램 대면 수업 이후 진행하였다. 학습 참여자들이 한국어 번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연구의 취지에 맞게 다문화학 전문가 2인과 한국어교육 전문가 1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 II. 사회통합프로그램

##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한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의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 2009년 도입되어 2010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전국 366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나 거소신고증 소지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의 귀화자가 참여 대상이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들에게는 귀화 신청 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 인정, 귀화면접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영주 자격 신청 시에는 기본 소양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체류 자격 신청 시에 가점이 부여되거나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혜택, 사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등이 있다[1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법무부, 2022)

이수혜택 구분	이수완료 구분		한국어민영주적격과	
	한국어민귀화적격과 정 이수완료자	한국어민영주적격과 정 이수완료자	평가 합격	재수료
①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②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	인정	인정		
③ 영주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④ 일반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⑤ 사증발급 시 혜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와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법무부(2023)의 외국인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2009년에는 1,331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그 후 참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56,535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소, 각종 교육의 온라인화 등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42,16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12].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이며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와한국문화’는 0~4단계, ‘한국사회이해’는 5단계이다. ‘한국어와한국문화’는 0단계가 기초, 1단계가 초급1, 2단계가 초급2, 3단계가 중급1, 4단계가 중급2이고 ‘한국사회이해’는 기본단계와 심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0단계(초급1)의 교육 시간은 15시간이며, 1

단계(초급1)부터 4단계(중급2)의 교육 시간은 100시간이고 5단계 기본은 50시간, 5단계 심화는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0단계는 평가가 없고 0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은 평가를 통해 상위 단계로 진급할 수 있는데, 3단계(중급1)까지는 자체평가이며 4단계는 중간평가, 5단계 기본은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심화는 귀화용 종합평가 등의 교육 평가를 거치게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재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자음과 모음의 학습부터 한국어 중급 단계 문법과 이 문법을 활용한 언어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이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3][14][15].

### Ⅲ. 설문 결과 분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근도, 학습 목적, 학습을 원하는 분야, 학습 시간, 학습 단계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한국 생활 정착 기여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

구분	내용	N	%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	알고 있었음.	33	40.2
	알지 못했음.	49	59.8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출입국관리사무소(사회통합정보망)	22	44.9
	주변 외국인 체류자	15	30.6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소개	9	18.4
	인터넷 검색	3	6.1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에 대해 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은 ‘알고 있었음’이 33명(40.2%), ‘알지 못했음’이 49명(59.8%)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한 49명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22명(44.9%), ‘주변 외국인 체류자’가 15명(30.6%),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소개'가 9명(18.4%), '인터넷 검색'이 3명(6.1%)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했음'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59.8%인 결과를 보면 아직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 과정에서 그 접근성은 어땠으며,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구분	내용	N	%
프로그램 신청 과정(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나?	있었음.	51	62.2
	없었음.	31	37.8
프로그램 신청 과정(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신청 절차가 복잡함.	22	43.1
	나에게 맞는 단계를 찾기 어려움.	15	29.4
	인터넷, 컴퓨터 등 내외부적 환경의 접근이 쉽지 않음.	9	17.7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 어려움.	3	5.9
	기타	2	3.9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관련된 접근성의 용이성 설문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은 51명(62.2%)이고 '없었음'은 31명(37.8%)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신청 절차가 복잡함'이 22명(43.1%)로 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단계를 찾기 어려움'이 15명(29.4%), '인터넷, 컴퓨터 등 내외부적 환경의 접근이 쉽지 않음'이 9명(17.7%),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 어려움'이 3명(5.9%), '기타' 의견이 2명(3.9%)였다. '기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명이 어렵다'와 '영어 설명이 없다' 등이 있었다.

학습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찾기 어려운 것, 기타 의견으로 프로그램 설명이 어려운 점과 외국인 학습자 모국어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 참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에 참여하는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습 참여 목적

구분	내용	N	%
학습 참여 목적	국적 취득 시 혜택	19	23.1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30	36.6
	취업 준비	12	14.6
	자녀 교육	4	4.9
	각 단계별 이수 자격증을 받기 위해	14	17.1
	기타	3	3.7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 목적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로 답한 학습자가 30명(36.6%)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 취득 시 혜택’이 19명(23.1%), ‘각 단계별 이수 자격증을 받기 위해’가 14명(17.1%), ‘취업 준비’가 12명(14.6%), ‘자녀 교육’이 4명(4.9%), ‘기타’ 의견이 3명(3.7%)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주변이 소개해서’, ‘전공에서 들으라고 해서’, ‘한국어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등이었다.

학습에 참여하는 목적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삶과 관련한 언어와 한국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으며, 국적 취득 혜택, 각 단계별 이수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실리적인 부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 목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습을 원하는 분야

구분	내용	N	%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쓰기	32	39
	듣기	2	2.5
	읽기	4	4.9
	말하기	12	14.6
	문법	8	9.8
	한국문화	15	18.2
	한국의 법과 규칙	8	9.8
	기타	1	1.2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학습 참여자들은 ‘쓰기’가 32명(39%)로 가장 높으며, ‘한국문화’가 15명(18.2%) ‘말하기’가 12명(14.6%), ‘한국의 법과 규칙’이 8명(9.8%), ‘문법’이 8명(9.8%), ‘읽기’가 4명(4.9%), ‘듣기’가 2명(2.5%)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1명(1.2%)로 ‘한국어 모두’라고 답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기’와 ‘말하기’ 등 언어기능 중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언어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한국문화’ 학습 시간에 관한 설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와한국문화’의 학습 시간

구분	내용	N	%
‘한국어와한국문화’ 학습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족하다	52	63.4
	적당하다.	18	22
부족하다면, 적절한 학습 시간은?	많다.	12	14.6
	110시간	12	23
	120시간	18	34.6
	130시간	15	28.4
	140시간 이상	7	14

‘한국어와한국문화’의 학습 시간에 대해 ‘부족하다’가 52명(63.4%), ‘적당하다’가 18명(22%), ‘많다’가 12명(14.6%)로 나타났는데, ‘한국어와한국문화’의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습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학습 시간을 설문한 결과, ‘120시간’이 18명(34.6%)로 가장 높았으며, 130시간이 15명(28.4%), 110시간이 12명(23%), ‘140시간 이상’이 7명(14%) 등의 순이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학습 시간에 대해 학습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120~130시간 즉 20~30시간가량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이해’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사회이해’의 학습 시간

구분	내용	N	%
‘한국사회이해’ 학습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족하다	60	73.2
	적당하다.	15	18.3
부족하다면, 적절한 학습 시간은?	많다.	7	8.5
	80시간	5	8.3
	90시간	6	10
	100시간	48	80
	110시간 이상	1	1.7

‘한국사회이해’의 학습 시간에 대해 학습 참여자들은 ‘부족하다’가 60명(73.2%), ‘적당하다’가 15명(18.3%), ‘많다’가 7명(8.5%) 등으로 답을 하였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이해’의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사회이해’의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학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학습 시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100시간’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48명(8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0시간’이 6명(10%), ‘80시간’이 5명(8.3%), 110시간 이상이 1명(1.7%)였다.

‘한국사회이해’의 경우도 현재 기본 50시간과 심화 20시간의 학습 시간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한국사회이해’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알아야 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법, 역사, 지리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단계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습 단계의 적절성

구분	내용	N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가 적절한가?	적절하다.	48	58.5
	적절하지 않다.	34	41.5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가?	한국어 수업을 6단계로 조정해서 사전 평가과 토픽 연계 과정을 일원화해야 함.	3	8.8
	한국어 고급 1,2단계 수업을 개설해야 함.	5	14.7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늘려서 실제로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6	17.7
	한국어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조정해서 이수 방법을 단순화해야 함.	18	52.9
	기타	2	5.9

현재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단계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학습 참여자들은 ‘적절하다’가 48명(58.5%), ‘적절하지 않다’가 34명(41.5%)로 나타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교육 단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교육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한국어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조정해서 이수 방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18명(52.9%)가 응답하였다.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늘

려서 실제로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은 6명(17.7%), ‘한국어 고급 1,2단계 수업을 개설해야 함’ 이 5명(14.7%), ‘한국어 수업을 6단계로 조정해서 사전 평가와 토픽 연계 과정을 일원화해야 함’ 은 3명(8.8%)였다. ‘기타’ 는 2명(5.9%)으로 ‘0단계 시간이 부족하다’, ‘토픽 단계와 맞지 않다’ 등의 의견이었다.

교육 단계의 적절성은 교육 단계의 세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에 맞게 좀 더 명확한 교육 단계 설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한 설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한국 생활 정착에의 도움

구분	내용	N	%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64	7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22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가?	한국문화 이해와 일상생활	28	43.8
	비자 교체(체류 자격 변경)	15	23.4
	가족과의 대화	3	4.7
	자녀 양육 및 교육	7	10.9
	취업	8	12.5
	기타	3	4.7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학습 참여자들의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도움이 된다’ 가 64명(78%),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 18명(22%)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습 참여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 ‘한국문화 이해와 일상생활’ 이 28명(43.8%)로 가장 많았으며, ‘비자 교체(체류 자격 변경)’ 이 15명(23.4%), ‘취업’ 이 8명(12.5%), ‘자녀 양육 및 교육’ 이 7명(10.9%), ‘가족과의 대화’ 가 3명(4.7%)였다. ‘기타’ 는 3명(4.7%)였는데 ‘한국어 능력이 좋아져서’, ‘수업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배워서’ 등의 의견이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은 한국어와 한국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본래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한국 생활 정착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 이수 혜택, 이수 단계,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 82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지도, 접근성, 학습 목적, 학습을 원하는 분야, 학습 시간, 학습 단계의 적절성, 한국 생활 정착의 기여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조차 잘 알지 못했다고 응답(59.8%)한 비율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학습자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찾기 어려우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최초 신청자에게 모국어 설명이 없는 점 등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 목적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생활과 관련한 언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국적 취득 혜택이나 이수 자격증 등과 같은 실리적인 부분도 학습 참여 목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학습 내용으로 보면 한국문화에 큰 관심이 있으며, 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의사 표현 언어기능 학습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 시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 모두 20-30시간가량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단계의 적절성의 경우에는 교육 단계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교육 단계가 좀 더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한국어와 한국사회 전반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체류 자격 변경 혜택 등 한국 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기반으로 보면,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좀 더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한국 생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영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늘려서 학습 분야와 학습 내용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시간은 각 단계 교과와 내용을 이수하고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시간 확보를 통해 실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정착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법무부 출입국통계( <a href="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a> ), 체류외국인.
[2]	이성순(2008).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다문화사회연구, Vol.1, No.1, pp.347-357.
[3]	김일란·김남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 pp.603-623.
[4]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독일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인문학연구, Vol.0, No.44, pp.263-310.
[5]	이미혜(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 pp.210-219.
[6]	이경주(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교육연구, Vol.1, No.-, pp.77-100.
[7]	전영순·김경제(2021).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방안, 인문사회21, Vol.12, No.1, pp.207-219.
[8]	조항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Vol.50, No.-, pp.236-267.
[9]	이미혜(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참여자 요구분석, 문화와융합, Vol.41, No.5, pp.805-834.
[10]	이미혜(2016).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Vol.23, No.1, pp.267-288.
[11]	법무부(2022).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서울: 법무부.
[12]	법무부 출입국통계( <a href="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a> ), 사회통합.
[13]	이래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영주어문, Vol.29, No.-, pp.347-373.
[14]	이은희(202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Vol.70, No.-, pp.199-223.
[15]	왕효동·이래호(2022).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분석의 사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언어기능의 통합 교육 양상과 언어 활동의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구, Vol.-, No.10, pp.299-334.